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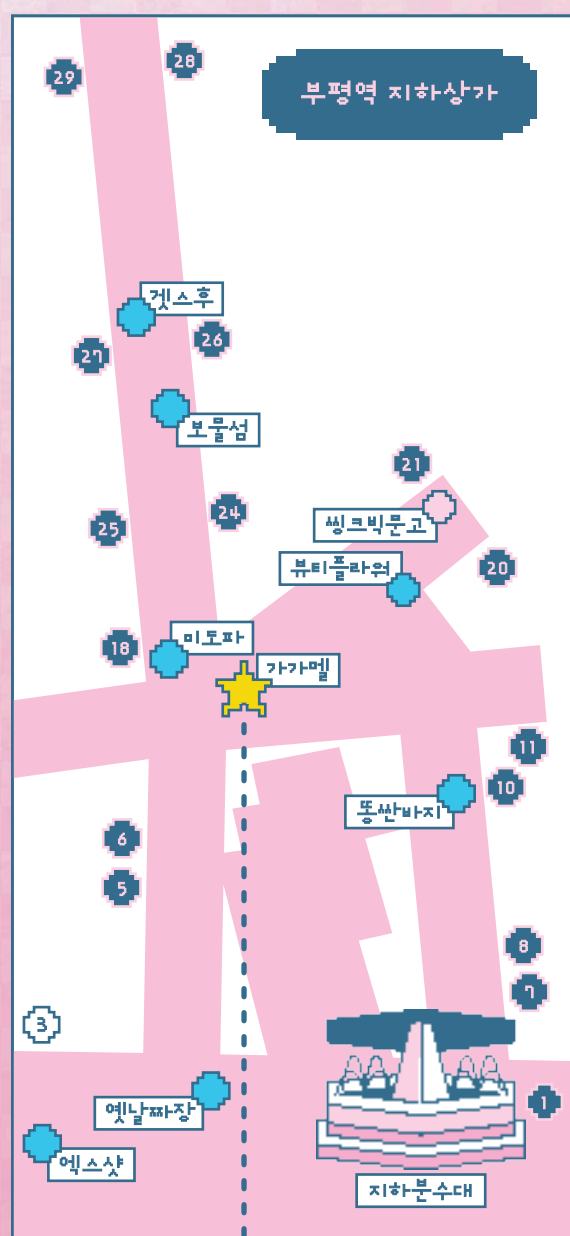
"2000년대, 누가 뭐래도 힙하고 멋진 건 다 부평에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타지에서까지 찾아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부평지하상가. 청춘들의 다양한 취향이 넘실거리던 문화의 거리와 부평역 일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찬란하게 빛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콘텐츠로 재생산되지 않은 부평에서의 그 시절을 기록합니다. y2k 부평은 시민 제보와 공간 운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발굴한 이야기를 통해 지도, 지역 작가 협업 굿즈, 투어 프로그램 등을 선보입니다.

☆ y2k 부평 ☆

- ☆ y2k 협업 장소
- 현재도 운영 중인 y2k 장소
- 사라진 그 시절 추억의 장소
- 지하상가 출구
- 지하철 출구

오른쪽 QR을 통해 y2k 부평의 장소들을 지도 앱에서도 만나보세요.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에서 y2k 부평 지도를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동아시티백화점

GAGAMEL



대한극장

부평역

모녀떡볶이

y2k란 연도를 뜻하는 Year, 숫자 2, 1000을 뜻하는 kilo의 앞글자를 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시기 및 생활양식을 의미합니다. 그 시절 추억을 가진 이들은 물론 해당 시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도 새로운 레트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y2k부평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시기 |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재미가 넘쳐났던 부평의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이 지도는 문화도시부평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spectacle

@incheon_spectacle

문화도시부평

www.bpcf.or.kr

문화도시부평은 시민이 문화주체가 되는 길을 함께 찾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부평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부평에서는 시민력이 성장하고, 도시 곳곳에 음악이 흐릅니다.

젊음이 공존하는 도시, 시민의 문화력을 토대로 문화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도시, 문화도시부평입니다.

매년 스펙터클은 인천 곳곳의 즐거움을 다채롭게 나누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인천 로컬 매거진 <스펙터클>을 발간하고 있으며, 매번 독립서점 사장님과 함께하는 동네 산책을 기획하거나 친구들과 인천을 다경하는 로컬 소셜 클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인천 스펙터클이 큐레이션한 인천 곳곳의 즐거움과 프로젝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incheon_spectacle 을 찾아주세요.

현재도 운영 중인 y2k 장소

목적바 보드게임카페

시장로30번길 5 테아프라자 6층 목피바 보드게임카페

놀거리가 지금보다 덜 풍부하던 시절, 보드게임카페는 친구들과 건전하게 즐기는 최고의 취미였다. 당시 자리에서 근처로 확장 이전했지만 2000년대부터 폭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모히칸노래방

부평문화로80번길 27

코인 노래방이 아직 세상에 등장하기 전, 부평에서 저렴한 가격에 노래방을 즐기고 싶은 청춘들은 이곳 모히칸노래방을 찾았다.

메이드빈 부평점

부평문화로80번길 16 스타배루두

커튼으로 가려진 비밀의 공간에서 파스타부터 디저트까지 모두 맛볼 수 있는 곳. 알콩달콩 커피부터 여고생들까지의 아지트였던 롭카페. 부평, 주안 두 곳에 지점이 있다.

모녀떡볶이

광장로 16 부평민자역사

이제는 인천 3대 떡볶이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얻은 모녀떡볶이지만, 그 시절엔 부평역 일대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알음알을 알려지던 추억의 분식집이었다.

엑스샷

광장로 16 부평민자역사 지하2층239호

배우 구혜선이 부평 얼짱 시절 증명사진을 찍은 곳으로 알려진 사진관. 가게 앞에 구혜선 사진이 걸려있어 여고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대한극장

경원대로 1382 대한빌딩

지금은 부평의 마지막 단관극장으로 남아있는 곳. 대형 멀티플렉스가 막 태동하던 2000년대만 해도 더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대한극장을 찾았다.

보물섬

부평대로 69 부평역지하상가 E동 65호

지하상가에서 긴 시간 자리를 지켜온 액세서리 전문점. 단순히 장신구를 사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피어싱을 위해 귀를 뚫으러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많다.

지하상가분수대

광장로 16

부평 사람과 타지 사람을 구분하는 마법의 주문, '부평역 분수대 앞에서 만나'. 지도 앱에도 없고, 심지어 분수도 나오지 않게 된 지 오래이지만 모두가 이곳을 분수대로 부른다.

로데오친구들

부평문화로65번길 13 212~100

지금은 평리단길로 불리게 된 이 골목은 예전부터 다양한 분식집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디멜리와 함께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는 이곳은 줄면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캔모아 부평문화의거리점

부평문화로 74 2층

캔모아 본사와는 더 이상 가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전의 점주가 명맥을 이어오는 또 하나의 캔모아. 2000년대 인테리어를 상당 부분 유지해 추억을 불러온다.

똥산바지

광장로30 부평대이지하상가 1,2,3호

부평 멋쟁이들의 유행을 책임졌던 청바지 전문점. 지하상가 출구와 가까운 위치와 강렬한 상호로 바지를 구매한 경험에 없는 이들에게도 깊게 각인되어 있는 랜드마크.

뷰티플라워

경원대로 1401~1 부평중앙지하상가 나동 81호

98년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부평 지하상가 최초의 꽃집이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꽃집. 그 시절 부평 사람들의 기념일을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도파 부평역지하상가점

부평대로 69 부평역지하상가 C43,C44

90년대부터 운영한 시계상점. 당시 지하상가에 20곳 가까운 시계 상점이 있었지만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로는 사라지고, 미도파만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갯스후

부평대로 69 신부평지하상가 1,2,3호

지금의 신부평지하상가가 '구 지하상가'라 불리던 시절부터 30년 넘게 운영해 온 빅사이즈 전문 의류 매장. 기본 사이즈부터 4x(사이즈까지 방대한 캐주얼 룩을 만날 수 있다.

옛날짜장

광장로 16 부평민자역사 지하 47,63,64호

가성비 식당이 모여있는 부평역 지하 푸드코트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온 짜장면집. 수타면에서 기계식 즉석면으로 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4,0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우드스타

시장로12번길 5 1층

2000년대 초 문화의거리 인근 카페일 바로 시작했다. 당시 간판의 표기는 '우드스톡'. 테마의거리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그 시절 단골부터 외국인 여행객까지가 모여든다.

명동칼국수

부평문화로 54 1층 명동칼국수

1978년부터 3대째 전통을 유지해 온 명동칼국수 부평.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깊은 맛에 오랜 단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김판조 닭강정

주부토로22번길 30 김판조닭강정

80년대부터 부평시장의 명물이었던 닭강정. y2k의 아이콘인 모델 '반유포'가 김판조 닭강정집 머느리가 되면서 근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얼짱

부평문화로80번길 16 스타배루두

20년대 인생네컷이 있다면 00년대엔 스티커사진! 스티커사진 열풍이 시들며 폐업했던 얼짱은 최근 y2k 문화가 유행하며 새롭게 재오픈했다.

사라진 그 시절 추억의 장소

구)진선미예식장

시장로 24 진선미주차장

오랜 시간 부평을 지키며 수많은 부부가 식을 올렸던 예식장. 이제는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버스 정류장 등에 지명이 남아있으며, 택시를 타서도 '진선미예식장 앞'이 여전히 통용된다.

구)동아시티백화점

부평문화로 35 모다 부평점

90년대 초 동아아파트 단지 내 문을 열었다. 동아백화점과 소송 끝에 이름을 시티백화점으로 바꿨고, 00년대에는 롯데백화점이 되었으나 여전히 동아시티백화점의 기억은 회자된다.

구)부평문고

부평대로 21 지하1층

30여 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부평의 랜드마크 중 한 곳. 약속 장소로도 사랑을 받던 곳이지만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23년 여름 영업을 종료했다.

구)씽크빅문고

시장로 7 지하 1층

지하상가를 대표하는 만남의 광장 중 하나. 부평 사람치고 씽크빅문고에서 책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 코로나 시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y2k 협업 장소

소리그림

대정로 66 다운타운일레븐

30년 넘게 운영 중인 유서 깊은 음반 전문점. 부평 지하상가에서 출발해 지금의 장소로 이전했다. 희귀한 그 시절 명반부터 요즘 핫한 아이돌의 신보까지를 함께 만날 수 있다.

캔모아 부평점

부평대로 12 2층

1999년 부평에서 처음 문을 열어 2000년대 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일빙수 전문점. 최근 y2k 열풍을 타고 2022년 오랜만에 새로운 매장의 문을 열었다.

매니아

부평문화로65번길 3 지하1층

비밀스런 지하로 들어가면, 강렬한 붉은 네온사인과 재즈 선율이 반겨주는 재즈바 매니아. 지금의 사장님이 1997년 인수해 늘 꾸준히 단골들을 맞이해주고 있다.

락캠프

신타리로6번길 6

90년대부터 2006년부터 부평사거리에서, 2011년 이후로는 부평구청 일대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락 음악 공연장. 인천 소재 학생 밴드라면 이곳에서의 공연이 필수 코스였다.

웨스턴스테이크

부평대로32번길 2

90년대 후반부터 지금의 평리단길 골목 2층을 지켜온 패밀리 레스토랑. 추억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90년대 배경의 2022년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촬영 장소로 쓰였다.

더레드락

시장로29번길 1

부평과 주안 두 곳에 지점을 둔 펍 '더 레드락'.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레드락 맥주'와 큼지막이 썰려 나오는 후라이드 치킨의 맛은 여전히다.

디멜리 부평점

부평문화로65번길 14

부평 지역 중고등학생의 참새방앗간이었던 '라볶이'집 디멜리. 프랜차이즈 매장이지만 이제 인천에 2개의 지점밖에 남지 않아 추억의 맛을 찾아 방문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가가멜 부평중앙지하상가점

부평중앙로 지하상가 다동 34, 37, 38호 (피란길)

30년 이상 부평지하상가를 지켜온 남성 캐주얼 의류 매장으로, 가게 입구의 슈렉 가면과 말 가면이 이곳의 시그니처. 손님이던 중학생은 어느덧 40대 아저씨가 되어 이곳을 다시 찾는다.

× spectacle

문화도시부평
CULTURE CITY BUPYEONG

부평
y2k